불교 대사회 역할 Good 종법 문제는 Bad

임기 만료 앞둔 조계종 34대 집행부 결산

2013년 출범해 4년간 조계종단을 이끌어온 제34대 집행부 임기가 오는 10월 30일 만료된다. 34대 집행부는 '자비와 화쟁으로 이웃과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발원 아래 △사회와 이웃을 향한 나눔과 봉사의 불교 △지혜와 자비를 구현하는 사부대중 공동체 △불교중흥을 위한 지속적 종단 혁신을 종무기조로 세웠다. 이에 따라 종무시스템 개선과 대사회역할 강화 등 다양한 부문에서 괄목상대할 만큼 업적을 이뤘다. 반면 선학원 관계 악화와 서의현 재심파동 등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본지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34대 집행부의 공과를 정리했다.

노동·인권분야 성과 뚜렷
불교 고유 토론문화 정립
문화재 다수 환지본처도
답 안 보이는 선학원 관계
서의현 재심파동도 오점
선거법 변화 실패 아쉬워

功-소외계층 지원·종무혁신

제34대 집행부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은 바로 노동위원회의 확대 개편을 통한 대사회역할 강화다. 2016년 초 기존의 노동위원회를 사회노동위로 개편하고, 20명의 실천위원을 위촉하면서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더욱 넓혔다는 평가다.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콜트콜텍 및 KTX여승무원 해고자 등 노동·인권 분야서 불교계 신뢰를 한껏 끌어올렸다. 아울러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조하며 성소수자들을 위한 자리도 마련해 품 넓은 불교의 유연성을 드러내기도 했다.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 및 재해 현장에 긴급구호단을 급파해 초기 대응에 나선 것도 주목받을 만하다. 국내로는 세월호 침몰에 따른 지원 활동과 2016년 울산 태풍 피해지역 긴급구호가 있다. 국외로는 필리핀 하이옌 태풍, 네팔 대지진, 미얀마 홍수 피해 구호활동 등이 있다. 이 같은 선제적 대응은 단발성이 아닌 장기적 지원으로 이어져 이재민 및 유가족들의 자립에도 기여했다.

종단 내적 성과로는 2013년 문을 연 '100인 대중공사'를 꼽을 수 있다. 시행 당시 '전시행정'이라는 비판도 받았지만 거듭된 사부대중공사는 불교 토론문화를 이끄는 모델이 됐다. 당시 논의결과들이 종무행정에 반영되기도 했으며, 현재 지역 교구본사에서는 대중공사를 바탕으로 지혜를 모아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조계종 제34대 집행부의 공과는 극명하게 나뉜다. 사진 왼쪽은 법인관리법으로 인해 갈등을 겪은 선학원 임원들의 탈종 관련 기자회견. 오른쪽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극락왕생과 미수습자 귀환을 기원하는 자승 스님 및 교역직 스님들.

또한 경복궁·광화문·종로·인사동·조계사를 연계해 전통문화벨트로 조성하는 '총본산 성역화불사'는 서울 도심에 대표 역사문화 관광자원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아울러 10.27법난기념관 사업과 이어져 불교계 명예 회복에도 힘을 보탰다. 기념관 사업 부지는 2016년까지 매입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소유주들과의 협의매수가 필요해 2022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했다.

성보문화재 보존과 환수를 위한 활동은 과거 어느 때보다 활발했다. 2014년 경찰청·문화재청과 '불교문화재 도난 예방 및 회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수십 점의 도난 문화재를 환수했다. 또 국외로 반출된 불교문화재 역시 미국·독일·프랑스 등 다양한 국가에서 환수해 환지본처에 앞장섰다.

過-선학원 관계·서의현 재심파동

이처럼 종단 내·외적으로 많은 성과를 남긴 34대 집행부지만 부족했던 부분도 적진 않았다.

가장 먼저 법인관리법으로 인한 선학원과의 관계 악화가 대표적이다. 2014년 6월 조계종 중앙종회서 기존 법인법을 대체하는 법인관리법이 가결되면서 선학원에 대해 이사 자격은 조계종 승려로, 이사 4분의1 이상을 총무원장 복수 추천에 의한 이사회 선출로 규정했다.

정관에 있던 '조계종 종지 종통을 봉대한다'와 '임원은 조계종 승려로 한다'는 조항을 삭제한 선학원 측은 "재단법인의 고유한 권한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사장 법진 스님을 비롯한 이사 11명과 감사 2명 등 13명의 임원이 조계종에 제적원을 제출했다. 하지만 조계종은 이 같은 행위를 징계사유로 법진 스님의 멸빈을 결의하면서 선학원과의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게 됐다. 현재도 이 같은 문제는 진행 중이며, 대화 채널조차 운용되지 못하는 상황까지 관계가 악화됐다.

또한 법인관리법으로 인해 현대 한국불교 대표 선지식인 송담 스님이 탈종한 일도 뼈아팠다. 송담 스님이 이사장인 재단법인 법보선원은 이사회서 종단 법인 등록을 거부하기로 결의하고, 송담 스님을 비롯한 문도들은 제적원을 제출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까지 나서 송담 스님의 탈종을 막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1994년 종단개혁 당시 멸빈된 前총무원장 의현 스님이 재심호계원 판결을 통해 공권정지 3년 판결을 받은 일 역시 논란은 진행 중이다. 호계위원 사퇴 촉구를 비롯해 비판 성명이 쏟아졌고, 자승 스님은 "논란이 종식될 때까지 재심판결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후 사부대중공사를 통해 '잘못된 판결'이라는 결론을 내렸으나 당시 호계원장 자광 스님은 "법에 위배되는 사안이 없다"고 반박한 뒤 사퇴했다.

총무원장 선출제도에 변화를 주지 못한 것도 아쉬움으로 남았다. 2014년 총무원은 준직선제에 가까운 선거법을 입법 예고했으나 종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후 염화미소법의 등장으로 총무원장 선출제도는 지속적으로 논박을 주고받았고, 중앙종회가 '원점 재검토'를 결의하며 차기 집행부에서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았다.

윤호섭 기자

불교 가치 담은 인성교육법 배워보세요

한마음과학원 11월 9~11일 '한나무 인성교육' 연수

조계종 스님 대상 진행
오는 11월 2일까지 접수
마음등불 사업 참여 혜택

불교적 가치를 담은 인성교육법인 '한나무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배울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은 오는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충남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조계종 승려 연수 '한나무인성교육'을 진행한다.

'한나무 인성교육'은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이 조계종 포교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청소년 인성교육프로그램인 '꽃을 피우는 나무'를 핵심 콘텐츠로 구성된 연수로, 2014년부터 조계종 교육원 인증을 받아 매년 1회, 2박 3일 숙박형 승려 연수 과정으로 진행해 오고 있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마음의 원리 △불교와 과학 △우리는 하나 △참나 찾기 △청소년 마음등불 △마음의 활용 △비정상회담 △그래 그래 괜찮아 등으로 구성된다.

'한나무 인성교육' 연수는 조계종 스님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11월 2일까지 30명 선착순 마감한다.

참가 스님들은 연수 점수가 부여되며, '꽃을 피우는 나무' 프로그램을 근간으로 한 조계종 포교원의 '청소년마음등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연수와 관련해 한마음과학원은 "한나무 인성교육, 승려연수과정은 불교 가치를 담은 인성교육콘텐츠로 구성되어 참여 구성원들 모두가 스스로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게 기획된 수준 높은 프로그램"이라며 "어린이·청소년 포교에 활용성이 높은 만큼 스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031)470-3196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정찬주 작가의 법정 스님이야기 ⑬ 좋은 친구

도반, 진리를 구하는 길동무

불가에서는 친구를 도반(道伴)이라고 한다. '진리를 구하는 길동무'라는 뜻이다. 그러지 못한 사이라면 차라리 혼자서 가라고 부처는 가르쳤다. 초기 경전인 〈숫타니파타〉에 있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가르침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참으로 친구를 얻는 행복을 기린다/ 자기보다 뛰어나다거나/ 비슷한 친구와는 가까이 친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친구를 만나지 못할 때는/ 허물을 짓지 말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외톨이가 되거나 고독해야 진리를 구할 수 있다는 가르침이 절대로 아니다. 서로가 숫돌이 되고, 칼날이 되어주는 관계가 좋은 친구라는 것이다. 법정 스님은 친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적이 있다.

"주변에 나쁜 친구를 가려내기 전에 나 자신이 과연 남에게 좋은 친구 역할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허물을 밖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준비되어 있는가, 아닌가를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좋은 친구란, 나를 속속들이 잘 알고, 나를 받아주고 세상에선 다 내치더라도 나를 이해해 주는 마음의 벗입니다. 좋은 친구란 서로의 부족하고 모자람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부족합니다. 그것을 내 친구가 채워 줍니다. 좋은 친구는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가까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지닌 좋은 요소, 좋은 향기를 내가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께서 친구로 여긴 분은 한둘에 불과했다. 천주교 원주교구의 장익 주교님 정도였다. 그밖에는 지인이라거나 친지라고 했다. 스님께서는 언행이 맑은 수행자들을 가끔 이야기해 주셨다.


일러스트·정윤경

이를테면 해제 때 선객들이 벗어놓고 간 양말이나 런닝셔츠를 빨아 다리 밑에 사는 넝마주이들에게 갖다 주고 오는 스님, 못 자국 하나 없는 빈 방에서 차를 마시는 스님, 드라이버를 지니고 다니면서 버스 안의 느슨해진 나사를 조여 주는 스님, 신도들에게 신세지기 싫다고 도시락을 싸와 공원에서 식사하는 스님, 산길을 넓힌다고 함부로 나무를 베지 않는 스님 등을 좋아하셨다. 한마디로 수행자다운 수행자를 칭찬하고 가까이 하셨다.

반면에 신도라도 육식을 즐기는 사람은 멀리 하셨다. 고기를 먹는 것은 죽어간 짐승의 원망까지 먹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다. 내가 남도산중으로 내려와 자연스럽게 채식주의자가 됐다고 말씀드렸더니 아주 좋은 변화라며 반기셨다. 그러시면서 스님께서는 젊은 날 존경했던 분이 흰 수염을 날리면서 불고기를 뜯는 모습을 본 뒤로는 저절로 멀어졌다고 술회하셨다. 그러고 보면 사람들한테도 알게 모르게 동류항의 질서가 있는 것 같다.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7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 유학생 모집
어학단기반 모집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 (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7년 10월 31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 (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